

## 덴도 쇼기 기물의 발자취 쇼기(將棋) (『이로하지류초(伊呂波字類抄)』에 상희(象戲))

『와칸산사이즈에(和漢三才図會)』에 쇼기(將碁)라고 기술. 중국에서 주나라 때 일어났다고 하며 옛날 인도에서 기원하여 각지에 전해져 다양한 방식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메이게쓰키(明月記)』에는 쇼지(正治) 원년(1199년)에 쇼기를 두었다는 것이 보이고, 『조수희화(鳥獸戲畵)』(조수희화권)에 쇼기로 보이는 유희 장면이 그려져 있어 가마쿠라 시대에는 권간(卷間)에도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쇼기는 '사스(두다)'라고 하며, 갑을이 대하여 반상의 기물을 두어 진행하며 공방합니다. 우리나라의 쇼기에 소쇼기·중쇼기·대쇼기·대대쇼기·마카대대쇼기·진쇼기 등이 있었던 것이 『쇼기육종지도(象棋六種之図)』에 기록되어 있지만, 근세에 이르러 소쇼기가 주류가 되고 다른 것은 쇠퇴했습니다. 쇼기판의 유품으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갈 만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세 이후의 것으로는 측면에 마키에를 시공한 것이 있으며, 에도 시대에는 바둑판·쌍륙판·쇼기판을 함께 삼면이라고 칭하고, 다이묘가의 혼례 도구나 히나 장식 도구 등에 삼면을 갖춘 예가 있습니다. 반상에 놓는 기물은 옛날에는 말이라고

했고, 기사(碁子), 기자(棋子), 쇼기마(將碁馬) 등의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물의 유물로는 현존하는 일본 최고(最古)의 기물은 나라현 고후쿠지(興福寺)의 구경내 우물 모양 유적에서 출토된 '왕장', '금장' 등 7 점으로 덴기(天禧)6년(1058년)이라는 연호를 기록한 목간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후쿠이현 아스와초이노(足羽町井の) 이치조다니 아사쿠라(一条谷朝倉)씨 관 터에서 발굴된 것으로 종류는 '왕장', '비차', '각행', '금장', '은장', '계마', '향차', '보병' 외에 '취상'이 있어 아사쿠라씨가 멸망한 덴쇼(天正) 원년(1573년) 이전에는 현재와 다른 기물도 사용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야마가타현 사카타시 키와노사쿠 터에서 발견된 기물 한개가 있으며, 앞면에 '병(兵)', 뒷면에 '금(金)'이라고 묵서되어 있습니다. 기물에 쓰는 문자는 『요슈후시(雍州府志)』에 따르면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가 능서가인 미나세 잇사이(水無瀬一斎)에게 쓰게 한 것부터 미나세가의 필적에 의한 미나세가 존중되었다고 합니다. 게이초(慶長) 17년(1612년) 오하시 소케이(大橋宗桂)가 명인이 되고 에도성 내의 오시로쇼기가 항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세 명인 소코(宗古)는 간에이(寛永) 13년(1636년) 소케이의 『쇼기즈시키(象戯図式)』를 증보 간행하여 '쇼기치시키삼카조(将棋治式三か条)'의 금지 수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 무렵 근세 쇼기의 방식이 확립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후 쇼기는 크게 보급되어 대중의 오락이 되는 동시에 희작(戲作)이나 니시키에(錦絵) 등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기보(棋譜)나 쓰메쇼기(詰将棋)의 출판도 이루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